

낙시망정보기술 (300104.SZ)

현재가 (8월 26일, 위안)	45.8
최고 목표가 (위안)	68.0
최저 목표가 (위안)	60.0
평균 목표가 (위안)	64.9

자료: Bloomberg

이문종	☎ (02) 3772-1586
	✉ mj1224@shinhan.com
공영규	☎ (02) 3772-1527
	✉ jxlove1983@shinhan.com

심전종합지수	2,023
시가총액 (백만원)	90,781
유통주식수 (백만주)	1,982
유동주식수 (백만주)	975
52 주 최고가 (위안)	61.0
52 주 최저가 (위안)	30.5
일평균 거래량 (백만주)	13.8
일평균 거래액 (백만원)	560.5
주요주주 (%)	Yueting Jia 34.5
	SZ Xingen Tech Fund 4.5
절대수익률 (%)	3개월 -22.1
	6개월 -22.1
	12개월 30.1
심전종합지수	3개월 -34.0
대비 상대수익률 (%)	6개월 -45.2
	12개월 20.6
심전종합지수 (%)	3개월 12.0
	6개월 23.1
	12개월 9.5

주가차트



12월 결산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세전이익 (백만원)	순이익 (백만원)	EPS (위안)	BPS (위안)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2014	6,762	216	73	364	0.2	1.7	73.7	22.3	8.6	15.3
2015	12,922	340	74	573	0.3	2.1	189.7	55.8	27.8	16.2
2016F	23,440	780	612	857	0.5	2.5	99.5	30.2	18.4	19.6
2017F	33,214	1,558	1,369	1,492	0.7	3.2	61.5	21.6	14.4	26.7
2018F	40,118	2,195	2,143	2,037	1.1	3.4	40.8	15.0	13.5	21.3

자료: Bloomberg consensus, 신한금융투자

- ◆ 중국판 넷플릭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
- ◆ 2016년 매출액 234.4억 위안(+81% YoY), 영업이익 7.8억 위안(+130% YoY) 전망
-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IoT 생태계 구축, 스마트폰과 자동차 사업 확장 기대



중국판 넷플릭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TV 판매 및 동영상 서비스 업체이다. 2004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했다. 2010년 중국 창업판 상장 이후 영화 및 드라마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동영상 콘텐츠를 확보하여 웹사이트(letv.com)를 통해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얻는 사업 구조에서 탈피하고 있다. 플랫폼과 콘텐츠, 단말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아우르는 '러스 생태계' 조성을 통한 수익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6년 매출액 234.4억 위안(+81% YoY), 영업이익 7.8억 위안(+130% YoY) 전망

2016년 매출액은 234.4억 위안(+81.4% YoY), 영업이익은 7.8억 위안(+129.6% YoY)으로 전망된다. 2010~2015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 117%의 고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사업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제조업에 진출해 기존 제조업체와 경쟁하며 영업이익률은 2010년 33.6%에서 2015년 2.6%로 떨어졌다. 올해 부터는 스마트폰과 스마트TV 판매 호조로 매출액 증가를 뛰어넘는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된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IoT 생태계 구축, 스마트폰과 자동차 사업 확장 기대

하드웨어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TV(슈퍼TV)는 2014년 150만대, 2015년 300만대를 판매했으며 2016년에는 상반기에만 250만대를 판매했으며 2015년 출시한 스마트폰은 누적 1,000만대 이상 판매했다.

전기차 사업도 순조롭다. 자회사 러에코와 패러데이 퓨처는 각각 중국 저장성과 미국 네바다주에 전기차 제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스포츠카 제조 업체 애스턴 마틴과 함께 2018년 전기차를 양산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IoT(사물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플랫폼 활용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동사가 보유한 콘텐츠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슈퍼TV, 스마트폰, 전기차 등 자사의 기기들과 결합이 가능하며 하드웨어 판매 확대는 IoT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